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 규 택**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80년대~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영미권의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중요한 논쟁적 주제인 로컬리티 개념, 토대 이론, 사회와 공간의 관계성을 논의하였다.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논쟁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로컬리티의 개념화’이다. 로컬리티는 “로컬의 사회·경제 조직과 활동이 시간·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형성된 사회·경제 공간은 로컬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틀(frame)로 개념화되고 있다.

로컬리티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은 구조화론과 실재론이다. 전자는 구조와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사회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며, 후자는 이원론(dualism, 이론-경험, 추상-구체, 필연-우연)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사회 이론가들에 의하면, 사회와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사회와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문화, 장소, 성, 민족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주제어: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실재론, 사회, 공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pkt11@pusan.ac.kr)

| 차례 |

1. 서론
2. 로컬리티 연구 동향의 회고
3. 로컬리티 연구의 주요 논쟁점
4. 결론

1. 서론

‘로컬리티 인문학’은 기존의 전문화된 학문 분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쌓아올린 성과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뒤 로컬과 로컬리티에 기초한 인문학을 개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은 로컬과 로컬리티에 관한 기존의 이론·방법론·경험적 연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1980년대~1990년대 초반에 걸쳐 영미권에서 실행된 ‘로컬리티 연구(locality studies)’의 동향을 분석하고, 중심 논쟁점을 고찰한다.

로컬리티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사회·경제 공간의 급속한 변화가 국가 내에서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시작하였다. 신고전경제학,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구조주의 등과 같은 일반 혹은 거대 이론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 공간의 변이(variations)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이 로컬의 변이들을 설명하더라도 로컬의 사회·경제·문화·생태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일반 이론이 로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들은 로컬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로컬들, 농촌, 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해결책은 농촌, 어촌, 중소도시의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

나라 특정 로컬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로컬리티 연구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의 재구조화에 따른 사회·경제 공간의 변이를 해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계획·실행되었다. 또한 로컬리티 연구는 1980년대 서구의 사회과학에서 주류 담론이었던 포스트모더니즘, 구조화론, 비판적 실재론, 사회와 공간의 통합에 관한 이론 등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었다.

‘로컬리티 인문학’은 서구 중심의 거대 담론과 국가 중심주의에 근거한 근대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발전적으로 해체한 뒤 로컬과 로컬리티의 시선에서 인문학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미권에서 진행된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경험적 연구들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로컬리티 인문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학, 지역학, 도시학과 관련된 잡지에 발표된 로컬리티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주도한 학문분야와 연구자,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로컬리티 연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로컬리티의 개념, 이론, 사회와 공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2. 로컬리티 연구 동향의 회고

본 장에서는 ‘로컬리티 연구’가 시작된 배경, 주도한 학문분야와 연구자, 연구 주제 중심으로 동향을 논의한다.¹⁾

1)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로컬리티 연구와 비슷한 성격의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문헌고찰은 차후로 미루고 본 논문은 1980년대~1990년대 초반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로컬리티 연구, 특히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서구의 사회과학은 로컬리티 연구가 취급한 다양한 주제들, 사회·경제 공간 변화, 지역 노동시장, 지방정부, 로컬 혹은 로컬리티와 문화, 공간/장소와 사

1) 연구 배경

로컬리티 연구의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사회·경제 공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 특히 영국에서 일어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변이를 설명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들(실업률 상승,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건조환경의 노후화, 사회·경제 공간의 불균등발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두 번째는 로컬리티 연구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와 공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의 축적이다.

로컬리티 연구는 사회·경제 변화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변이의 설명과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programmes)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영국의 ‘경제·사회 연구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는 세 개의 중요한 로컬리티 연구(locality research)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제안된 세 개는 도시·지역체계의 변화(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 CURS) 프로그램, 사회 변화와 경제 활동(Social Change and Economic Life,

회·문화·정치)의 관계성, 장소성 등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성과물의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 로컬리티 연구들을 다양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업도 차후로 미룬다.

- 2) CURS와 SCEL은 통합 조정자를 두고 6개~7개 로컬리티에 기초한 다수의 연구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며, Duncan & Savage가 소속된 Sussex 대학의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단일 연구팀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반 세 개의 로컬리티 연구는 모두 완료되었고, 결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Bagguley, P., et al., *Restructuring: Place, Class and Gender*, London: Sage, 1990; Cooke, P., *Back to the Future: Modernity, Postmodernity and Locality*, London: Unwin Hyman, 1990; Dickens, P., *One Nation? Soci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Locality*, London: Pluto Press, 1988 참조.

SCEL)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 재구조화, 사회변화, 로컬리티에 관한 Sussex 대학의 소규모 프로그램이다. 세 개 모두는 1970년대~1980년대 영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회와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재구조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사회와 경제 변화의 국가적·국제적 기원(origins)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작은 규모, 즉 국가하부의 로컬리티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첨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Massey(1979, 1984)의 ‘노동의 공간적 분업 (spatial divisions of labor)’ 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지리(new geography)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Giddens(1984)와 Urry(1981)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한 ‘공간의 재발견(rediscovery of space)’은 [프로그램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³⁾

Duncan and Savage(1991, p.155~156)에 의하면, 로컬리티 연구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에 있어 공간성(spatiality)의 중요성과 로컬리티의 개념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로컬리티 연구학파(locality research school)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세 개의 프로그램은 로컬리티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SCEL은 로컬리티를 사회·경제 변화의 설명에 있어 잔여 변수(residual variable)로 취급하였다. Sussex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회적 과정은 다른 공간적 터전(settings) 속에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로컬리티를 사례연구지역(case-study areas)으로 취급하여 경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Sussex 그룹은 로컬리티 개념 자체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⁴⁾ CURS 프로그램은 로컬리

3) Duncan, S. and Savage, M., "New Perspectives on the Locality Debat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p.155.

4) Duncan, S. and Savage, M., "Space, Scale and Locality", *Antipode*, Vol.21, 1989; Savage, M. et al., "Locality Research: the Sussex Programme on Economic

티를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간적 객체(objects)로 인식하고, 분석을 위한 조작적·개념적 단위로 보았다. CURS 프로그램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 Cooke은 “로컬리티가 지리 이론과 경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고 매력적이지만 [개념 정의는] 복잡하다”고 인식하였다.⁵⁾ Cooke (1986)은 영국을 대표하는 7개 로컬리티⁶⁾를 대상으로 도시와 지역 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연구의 예비 결과에 의하면, 로컬 노동시장의 구조, 작업조직, 로컬의 사회구조, 로컬의 정치와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⁷⁾

로컬리티 연구를 입안하는 데 이론적 틀을 제공한 Massey는 영국의 로컬리티 프로젝트가 어떠한 인식과 상황 속에서 탄생하였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⁸⁾ 첫째, 국가 수준(national level)에서만 이루어지는 논쟁과 결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가 많다. 그것은 공간적 규모(scale)와 변이(variation)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가정된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는 분명하게 일반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과과정에 포함된 개별 구성요소들은 국가 내에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정치·문화·경제 변화의 관계는 지방 수준에서 중요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논쟁적인 인

Restructuring, Social Change and the Loc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Social Affairs*, Vol.3, 1987 참조.

5) Cooke, P., "Locality Theory and the Poverty of 'Spatial Variation'(A Response to Duncan and Savage)", *Antipode*, Vol.21, 1989b, p.272.

6) 로컬리티의 경험(혹은 사례) 연구를 위해 선정된 7개의 로컬리티는 Middlesbrough, Lancaster, E. Liverpool, SW Birmingham, Cheltenham, Swindon, Thanet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7) Cooke, P., "The 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Regional Studies*, Vol.20, 1986, p.243.

8) Massey, D.,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pp.269~270.

과과정의 일부분은 국가 수준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 변이는 “정치적 반응과 조직의 잠재력, 문제, 양상이 국가 하위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개인 혹은 집단의 투표 유형은 지리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공간 변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넓은 범위에서 펼쳐지는 운동이나 상층 조직을 배제하거나 혹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로컬의 대조 혹은 대립(local contrasts)은 “개별적인 로컬의 변화는 자본주의 일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에 로컬의 대립은 실체(reality), 다양성의 조건, 로컬의 특성을 결합시키는 현실적(actual) 과정에 대한 토대의 인식 혹은 이해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경제 공간의 변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국가와 국제 변화가 국가 하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로컬리티 연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지리학, 정치경제학, 도시학 및 지역학, 사회학 등 개별 학문분과가 축적시킨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토대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새로운 인식의 틀이 형성되었다. 사회는 공간을 생산하고, 만들어진 사회 공간은 개인과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분야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수용한 학문분과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와 공간의 상호작용’의 이론적 틀은 자본 이외의 변인들(성, 민족/인종, 소수자 등)과 장소성 혹은 장소 정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다. ② 1970년대 영미권의 사회과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론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이다. 이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자본주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 공간의 재구조화론, 공간의 불균등 발전론,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마

르크스 정치경제학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론이 추상적·거시적이며, 국가 혹은 세계 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미시적인 로컬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것은 사회·경제와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자본 이외의 변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않았고, 장소성 혹은 장소의 정치를 능동적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③ 1980년대 이후 서구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것은 거대 혹은 일반 담론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이론들이다. 그리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시도한 Giddens의 구조화론과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이 로컬리티 연구에 활용되었다.

2) 연구 분야와 연구자

로컬리티 연구는 도시학 혹은 지역학(지역개발), 지리학, 사회학이 어울려져 진행되었다.⁹⁾ 지역학과 지리학은 공간 혹은 장소의 관점에서 다양한 (비)물질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펼쳐진 사회·경제 공간의 재구조화를 자연스럽게 다루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인문주의(humanism)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로컬리티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로컬리티 연구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이론들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비평적으로 발전시킨 Massey(1984)의 ‘노동의 공간분업

9) Cooke, P., "Clinical Inference and Geography Theory", *Antipode*, Vol.19, 1987a; Cox, K. and Mair, A., "Locality and Community in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8, 1988; Massey, 앞의 책; Urry, J., "Locality Research: The Case of Lancaster", *Regional Studies*, Vol.20, 1986 참조.

(Spatial Divisions of Labour)’이다. 사회학에서 로컬리티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학자는 Urry(1981, 1986, 1987)이다. Urry는 사회학이 인간과 사회의 활동과 제도 등을 연구하면서 무관심했던 공간(지역 혹은 로컬리티)을 사회와 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정 로컬리티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설명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연구해야 할 주제는] 1) 사회와 공간·시간의 관계, 2) 사회적 관계 자체의 성질과 이것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구성되는 방식, 3) 로컬 혹은 로컬리티 용어와 관련된 상이한 느낌/앵착(senses)(이것은 사회와 공간의 분석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을 맺음)이다.¹⁰⁾

지리학과 사회학을 가로지르면서 로컬리티 연구에 이론과 방법론 측면에서 기여한 학자는 Sayer(1989, 1991)이다. 특히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Sayer의 이론 혹은 방법론은 로컬리티 연구가 직면한 이원론(dualism, 이론 - 경험, 추상 - 구체, 글로벌 - 로컬 등)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로컬리티에 관한 논문들의 분석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로컬리티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로컬리티 연구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이다.¹¹⁾ 두 번째는 로컬리티 연구의 경험

10) Urry, J., "Survey 12: Society, Space and Loc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5, 1987, p.435.

11) Cooke, P., "Research Policy and Review 19. Britain's New Spatial Paradigm: Technology, Locality and Society in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19, 1987b; "Clinical Inference and Geographic Theory", *Antipode*, Vol.19, 1987c; "Locality, Structure, and Agency: A Theoretical Analysis", *Current Anthropology*, Vol.5, 1990; Cox, K., "The Abstract, the Concrete, and the Argument in the New Urban Politics", *Journal of Urban Affairs*, Vol.13, 1991; Cox, K. and Mair, A.,

을 토대로 로컬리티 연구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이다.¹²⁾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입장을 택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로컬리티 연구에 상당히 부정적이다.¹³⁾ 이들 세 분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로컬리티 연구자에 대한 논의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람은 Sayer(1985, 1989a, 1989b, 1991)와 Warf(1990, 1991, 1993)이다.

CURS 프로그램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로컬리티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연구자는 Cooke이다. 그는 로컬리티를 경험과 개념 혹은 이론의 관점에서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Cooke(1987a, 1987c, 1989a, 1989b, 1990)은 일련의 이론 논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CURS 프로그램과 Cooke의 논문에 근거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SRC가 주도한 로컬리티 프로그램의 기획에는 관여했지만 실질적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Massey(1991)는 로컬리티를 장소와 결부시켜 장소의 정치 혹은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Massey는 Cooke과 함께 로컬리티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사회학자인 Urry는 로컬리티의 경험적 연구에 참가하였고, 로컬의 사회와 공간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81년 그가 발표한 논문은 로컬리티, 지역, 계급의 상호관

"Locality and Community in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8, 1988; "Levels of Abstraction in Locality Studies", *Antipode*, Vol.21, 1989; "From Localised Social Structures to Localities as Agen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Massey, 앞의 책; Urry, 앞의 책 참조.

12) Duncan, S., "What is Locality?",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Volume II*, Peet, R. and N., Thrift (eds.), London: Unwin Hyman, 1989; Duncan, S. and Savage, M., 앞의 책 참조.

13) Beauregard, R. A., "In the Absence of Practice; the Locality Research Debate", *Antipode*, Vol.20, 1988; Lovering, J., "Postmodernism, Marxism, and Locality Research: the Contribution of Critical Realism to the Debate", *Antipode*, Vol.21, 1989; Smith, N.,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Some Comments o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Vol.19, 1987 참조.

계를 새롭게 설명한 고전적(classic)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Cox and Mair(1988)와 Cox (1991a, 199b)는 미국의 로컬리티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Cox and Mair(1988)는 로컬 자체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로컬적 의존성(local dependence)’ 개념을 고안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로컬의 경제발전의 정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Cox(1991a)는 로컬리티 개념을 지방화된 사회구조(localized social structure)로부터 행위자로서의 로컬리티(localities as agents)로 전환시켜 로컬리티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Duncan and Savage(1989)는 로컬리티 연구의 문제의식,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간의 변이는 사회학, 지리학, 지역학 또는 도시학, 등에서 해명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로컬리티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로컬리티의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고, 독자적 혹은 자발적인 국가하위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로컬리티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로컬리티 개념 대신에 사례연구지역, 소도읍(town), 지역 노동시장, 지역, 장소 등의 기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로컬리티 연구를 비판한 또다른 연구자들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와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CURS 프로그램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론 혹은 경험적 연구를 비판을 하였다. 비판의 중심 내용은 경험주의, 로컬의 독자성 혹은 자율성, 공간결정론, 미시적 구조주의, 규모성, 로컬리티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 실천 등이다.¹⁴⁾

14) Beaugard, R. A., 앞의 책; Cochrane, A., "What A Difference The Place Makes: The New Structuralism of Locality", *Antipode*, Vol.19, 1987; Lovering, J., "Postmodernism, Marxism, and Locality Research: the Contribution of Critical Realism to the Debate", *Antipode*, Vol.21, 1989; Smith, N.,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Some Comments o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Vol.19, 1987 참조.

3) 연구 주제

주제에 따라 로컬리티 연구를 분류해 보면,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 연구, 경험적 연구, 비판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은 Cooke(1987, 1990), Cox and Mair(1991), Massey(1991), Urry(1981, 1987), Sayer(1989, 1991), Warf(1988) 등이다. 로컬리티 연구에 이용된 이론과 방법론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관계성을 다룬 구조화론,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는 Cooke(1986, 1987), Cox and Mair(1988), Eklund(1994), Elander et al.(1991), Eyles(1987), Morris(1991), Norcliffe and Liu(1993), Page(1996), Urry(1986) 등이다. 경험적 연구의 주제는 지역경제발전, 경제활동과 구조, 주택시장, 지방정부, 계급, 지방노동시장, 도시와 지역 체계의 변화 등이다. 일반적으로 로컬리티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사회·경제와 공간 혹은 장소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 요인을 소홀히 하였다.¹⁵⁾ Bowlby(1986)는 로컬리티 연구에서 성(gender)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는 Beauregard(1988), Cochrane(1987), Duncan and Savage(1989), Lovering(1989), Smith(1987) 등이다.

3. 로컬리티 연구의 주요 논쟁점

1) 로컬리티의 개념

로컬리티 연구에 관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로컬리티의 개

15) Jackson, P., "Mapping Meanings: A Cultural Critiqu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Longhurst, B., "Raymond Williams and Local Cultur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참조.

념이다. 로컬리티는 국가 혹은 세계 체제 내에서 상대적 혹은 관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 즉 로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비)물질적 실체들(realities)과 이와 관련된 성질들을 나타내며, 이들은 로컬 내·외부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로컬리티는 로컬 내·외부의 다양하고 상이한 힘들이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속에서 존재하는 (비)물질적 실체들인 동시에 과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로컬리티의 개념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로컬리티 연구에서 로컬리티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Cooke, Massey, Cox 등이고, 후자는 Cochrane, Ducan and Savage, Smith, Cochrane 등이다.

Cooke(1986)은 로컬리티를 노동시장과 관계시켜 정의하였다. 로컬리티는 노동시장의 유형들과 사회적·공간적 형태들이 구체적으로 상호 교차하는 관점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도식적일 수밖에 없다. 로컬리티는 과거의 공업 조직과 구조 그리고 고용관행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적 특성과 관련지어져야 한다. 로컬리티는 자본주의 발달 과정과 결부되어 정의되어야 하며, 더욱이 국가와 관련되어야 한다.¹⁶⁾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의 관계를 포함한 근대성의 조건 하에서 로컬리티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관계되어 있다. 국가는 자신의 영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로컬리티에 의해 구성되고, 또한 로컬리티의 구성은 국가적 관점에서 규정된다. 국가와 로컬리티는 의심할 여지없이 상호 의존적이다. 즉 국가성은 로컬리티 구성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로컬리티 구성원은 국가에 충성(allegiance)한다. 국가가 특정 로컬리티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는 필연적 관계가 아닌 우연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로컬리티는 외부에서 생성된 구조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16) Cooke, P., 앞의 책, pp.13~14.

수도 있다. 즉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같은 외부적 구조는 그 자체에 필연적인 경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로컬리티 내부의 특성들, 값싼 노동, 노동자들의 취약한 연대, 자연자원 등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외부에서 발생한 필연적 경향성과 로컬리티 내부의 특성들이 상호작용하는데, 이것은 로컬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Cooke은 비판적 실재론에 근거하여 필연과 우연 그리고 국가와 지방을 상호 의존적 관점으로 로컬리티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Cooke은 로컬리티 개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로컬리티 효과 혹은 영향(locality-effect)과 능동적 로컬리티(proactive locality)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로컬의 효과는 노동 현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 로컬리티 구성원은 로컬 특유의 사고와 행동 방식(혹은 정치적 선호도)을 발전시킨다. 또한 로컬리티는 국가와 함께 사회적 운동과 정치적 개입을 위한 매개체(vehicles)이다. 로컬에 토대를 둔 다양한 실천들은 국가 혹은 로컬 상위의 구조적 힘(supra-local structural powers)에 영향을 미친다.

Cooke과 함께 로컬리티의 유용성을 지지하는 지리학자는 Massey(1991, 1993)이다. Massey는 로컬리티를 ‘장소’와 ‘관계’의 관점에서 개념화시키고 있다. Massey는 로컬리티 개념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1960년대~1970년대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공간과학(spatial science)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지역 혹은 장소의 구체성 혹은 차이성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상이한 지역(혹은 장소)의 경제·사회·문화·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국가 하위단위에서 국가의 영향력의 차이와 내부적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유는 로컬리티 연구가 경제와 사회 지리의 통합성과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다.¹⁷⁾

로컬리티 개념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로컬리티가 지역에 편중된 내용들을 다루고, 경험적·기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론화 혹은 일반화가 어렵고, 필연적 요인보다 우연적 (혹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Massey(1993)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로컬리티 연구 자체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Massey(1991, 1993)는 이 문제를 장소와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로컬리티의 개방성, 즉 로컬리티의 내부 요인들보다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경계(boundary) 문제가 제기된다. 지리학자들은 경계 짓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원론적으로 외부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로컬리티의 개념화는 어떤 형태이든 경계 짓는 일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장소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더욱이 특정 목적 하에서 어떤 장소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가 다른 목적 하에서도 반드시 최선의 (혹은 적합한) 정의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 혹은 특수한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장소 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연관된 장소를 정의하는 데 반드시 적합할 수는 없다. ... 앞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볼 때, 로컬리티(locality)는 항상 임시적(provisional)이고, 언제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갈등적(contested)이다.¹⁸⁾

로컬리티의 형성과 특성은 특정 장소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다. 어떤 장소에 대한 이해는 보다 넓은 맥락, 국가와 국제 관계 속에서

17) Massey, D.,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Vol.79, 1993, p.143.

18) Massey, D., 앞의 책, pp.148~149.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로컬이 국가 혹은 세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받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로컬 사람들의 행동이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연구되어야 한다. 로컬과 외부와의 관계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상호의존적 관계가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로컬과 외부와의 상호관계성은 지배 혹은 종속, 영향력, 권력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¹⁹⁾

Duncan and Savages(1989)는 로컬리티 개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로컬리티는 거의 수사학적 개념이며, 도시 및 지역 연구를 공간 결정론으로 후퇴시키려는 위험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들은 “로컬리티 대신에 사례연구지역, 소도읍(towns), 노동시장지역, 지역, 장소, 공간적 변이 등 기존의 개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로컬리티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 연구(community studies)의 실패 전통을 따르고 있다. 즉 공동체 연구에서도 공간이 사회적 과정을 차별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Duncan and Savages (1989)는 로컬리티 연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로컬리티는 중요한 무엇가를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하다. 즉 공간적 변이와 구체성(specificity)은 사회·경제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컬리티는 공간적 변이와 구체성이 어떻게(how), 어느 정도로(how far) 사회·경제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두 가지 용어는 공간결정론(spatial determinism)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1980년대 후반 세 가지 방식으로 “공간이 차이를 만든다(space makes a difference)”는 전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째는 공간의 우연적 효과이다. 사회·경제 과정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특정 장소의 성격과

19) Massey, D., 앞의 책, pp.144~145.

현재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지방적 인과과정들(local causal processes)이다. 공간결정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간적 우연성은 사회·경제 과정들이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로컬리티 효과(locality effects)이다. 로컬에 작동하는 인과적 힘과 공간적 표현의 우연성은 특정 장소의 사회구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자발적 혹은 독자적인 국가하위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로컬리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컬리티를 장소 혹은 공간적 변이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로컬리티 개념은 사회적 자율성 혹은 공간결정론과 관련지을 수 있다.²⁰⁾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을 종합하면, 로컬리티는 국가 혹은 세계 체제 내에 위치한 로컬의 관점에서 (비)물질(이념·가치, 상징, 상상, 자연과 인조 환경, 사회·문화·경제의 조직과 제도 등), 공간·시간, 개별 혹은 집단의 인식과 실천을 통합 혹은 관계시키려는 존재론적·인식론적 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로컬을 구성하는 요소, (비)물질, 공간·시간, 인식과 행위의 주체를 통합시키려는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로컬의 구성 요소 각각을 현상적이고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계적 혹은 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논리실증주의 철학과 이론에 토대를 둔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영미권의 사회과학에서 근본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둘째는 로컬의 구성 요소 각각을 독립적 실체로 인정하고, 요소 각각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셋째는 로컬의 구성요소들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즉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비)물질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비)물질이 존

20) Duncan, S., 앞의 책; Duncan, S. and Savage, M., 앞의 책 참조.

재하지 않는다. 로컬리티 개념화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측면에서 둘째와 셋째의 방식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2) 로컬리티의 토대 이론

로컬리티 연구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공간적 변이를 해명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고, 이것은 특정한 이론적 토대 위에 구축·실행되었다. 로컬리티 연구는 구조화론(structuration)과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²¹⁾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된 사회·경제 재구조화(socio-economic restructuring)와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이것은 로컬리티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Massey(1984)의 『노동의 공간적 분업』 텍스트에 잘 나타나 있다. Massey는 공간 구조(혹은 조직), 장소 정치, 자본주의 생산과 사회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비평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적 틀을 수립한 뒤 이론과 경험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거시와 추상 혹은 국가와 세계 수준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국가 하부에서 상이하게 전개되는 사회·경제와 공간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보였다.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이 제공하는 이론·방법론·실천의 장점들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하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

21)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틀로 포스트모더니즘도 언급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Cooke, P., 앞의 책; Lovering, J., 앞의 책; Swyngedouw, E.A., "The Heart of the Place: the Resurrection of Locality in an Age of Hypespace", *Geografiska Annaler*, Vol.71, 1989; Warf, B., "Can the Region Survive Post-modernism?", *Urban Geography*, Vol.11, 1990; "Power, Politics, and Locality", *Urban Geography*, Vol.12, 1993 참조.

잡하고 역동적인 사회·경제 공간의 변화를 해명할 이론적 틀이 필요하였다.

(1) 구조화론²²⁾

사회를 설명하는 데 두 가지 방식, 사회와 행위자(혹은 주체) 각각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틀이 존재하여 왔다. 전자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인식과 실천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존재하고 작동한다. 이 관점의 문제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인식과 실천이 사회 구조와 제도에 의해 연역적으로 추론될 수 없다는 점이다. 후자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인식과 실천으로부터 사회를 설명하려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회 구조와 제도 등은 개인 혹은 집단의 인식과 실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Giddens의 구조화론은 사회 구조와 행위자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만들어진 이론이다.

(구조화 이론의) 핵심은 행위와 구조를 ‘이중성(duality)’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즉, 그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위는 구조에 함축되어 있고 구조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기든스는 구조를 단순히 구속하는 것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구조는 행위를 구속함과 동시에 또한 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enabling) 이해한다.²³⁾

시간과 공간은 기든스 이론의 핵심적 변수이다. 시공간 변수는 사

22) Giddens의 구조화론은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ddens(1971, 1976, 1984)의 저서에 포함되어 있다.

23) Ritzer, G., *Sociological Theory*, 김왕배 외 옮김, 『사회학이론』, 한울, 2008, 306~307쪽.

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표적인 예가 같은 시공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이다. 그러나 사회 체계(social system)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운더스(Saunders)는 “사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그것들이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기든스가 사회이론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성과 중의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²⁴⁾

사회적 구성에 있어 구조와 행위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사회적 구조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하고, 역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사회적 구조는 시간화·공간화 되어(temporalized and spatialized)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상이한 전략(혹은 목표)을 추구하는 행위자와 분리되어지면 무의미해진다. 행위자는 항상 특정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행동을 한다. Pred는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화와 제도의 재생산은 구조화의 과정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어진다. 즉 하나는 다른 하나가 된다. 그리고 둘의 물질적 연속성(material continuity)과 시·공간 흐름(time-space flow)은 상이한 방향으로 (혹은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²⁵⁾

24) Ritzer, 앞의 책, p.724.

25) Pred, A.,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geography of Becoming Plac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4, 1984, p.47.

(2) 실재론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창안한 Bhaskar에 의하면, 실재성(reality)은 세 개의 영역, 경험 영역(empirical domain), 현실 영역(actual domain), 실재 영역(real domain)으로 구분될 수 있다.²⁶⁾ 첫 번째는 경험되어 지는 것, 즉 사람들이 관찰 혹은 경험하는 사건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현실 영역의 부분에 속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관찰 혹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 사건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인과력(causal powers)을 발생시키는 기제(mechanisms)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기제는 인간의 의식 혹은 경험 이전에 존재하며, 실체(actuality or entity)의 구조에 의해 발생하고, 또한 구조에 인과력을 부여한다. 사건 혹은 사물의 실체는 실재 영역에 속한 다양한 (혹은 상이한) 기제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성(reality)이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들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²⁷⁾

비판적 실재론의 두 번째 핵심은 실재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 영역이 계층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이다.(Elder-Vass, 2008, p.462) 상위영역에 속한 실체(entities)는 창발적 혹은 발생적

26) Elder-Vass, D., "Searching for Realism, Structure and Agency in Actor Network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9, No.3, 2008, p.458.

27) 신조영은 총체와 그것의 개별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반결정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총체 속의 개개 모든 구성요소는 자신의 내부에 그 총체 속의 모든 다른 구성요소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체는 그 속에 내재된 본질의 표출이 아니라 수많은 구성인자들이 떼려야 뗄 수 없게 한데 얽히고설킨 복잡한 반결정론적 과정의 복합체이다. ... 반결정론적 상호작용 속에는 미리 보장된 본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현상, 원인/결과와 같은 이분법적 서열과 우선순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반결정론적 총체는 미리 주어진 고착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원한 상호작용들의 덩어리이다.”(신조영, 『그람시(Gramsci) 사회이론과 반결정론적 순간들』, 『미국사연구』 16, 한국미국사학회, 2002, 38쪽)

특성(emergent properties)을 지니고 있지만 하위영역에 속한 실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창발적 특성은 실재영역(real domain)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제이며, 인과력과 같은 뜻이다. 다양한 인과력이 상호작용하여 현실 사건(actual events)이 발생한다.²⁸⁾

Bhaskar는 사회 활동과 구조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의존적 관계로 결합시켰다.²⁹⁾ 모든 사회 활동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며,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 구조의 재생산은 활동 자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구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나 가로질러 일어나거나 확산된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사회적 구조는 사회 활동에 의존한다. 사회적 구조가 재생산되는 범위는 공간적·시간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인문학의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논리적으로 지리적·역사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 실재론은 로컬리티 연구가 다양한 관계의 측면, 즉 우연과 필연의 관계 그리고 일반과 구체의 관계를 통해 로컬의 변이 혹은 특이성, 로컬과 외부(국가, 세계)와 관계를 설명하고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³⁰⁾ 실재론은 특정 장소에 다양한 실체들의 일반적인 힘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소의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Sayer(1991)는 실재론에 기초하여 세 개의 상이한 관계, 즉 우

28) 비판적 실재론의 세 영역과 각각의 영역에 속하는 실체의 의존 관계는 다음 표로 요약될 수 있다.(Bhaskar, R., *A Realist Theory of Science*, Brighton: Harvester Press, 1975, p.56)

실체의 세 영역			
	실재(real)영역	현실(actual) 영역	경험(empirical) 영역
기제(mechanisms)	●		
사건(events)	●	●	
경험(experiences)	●	●	●

29) Bhaskar, R.A., "Beef, Structure and Place: Notes from A Critical Naturalist Perspectiv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Vol.13, No.1, 1983, p.92.

30) Sayer, A.,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참조.

연(contingent)-필연(necessary), 구체(concrete)-추상(abstract), 로컬(local)-글로벌(global)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서 필연은 논리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들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연은 필연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 혹은 맥락에 따라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 자본가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본가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남성 노동자 혹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할 것인가는 우연적 조건 혹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필연적 관계는 추상적(abstract) 혹은 일반적(abstract)이다. 이에 반해 자본가가 남성 노동자 혹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같은 우연적 관계는 구체적(concrete)인 조건 혹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로컬리티 연구에서 필연 - 우연 관계와 지리적 규모(local/regional, national, global) 사이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Sayer(1991)는 우연과 필연은 규모의 차이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글로벌의 관점은 추상적/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반면에 로컬의 관점은 구체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구조화론과 실재론에 토대를 둔 로컬리티 연구에 대해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입장을 택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³¹⁾ 비판의 중심에는 이원론(dualism), 즉 이론 - 경험, 추상 - 구체, 필연 - 우연, 글로벌(global) - 로컬(local)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비판적 연구자들은 로컬리티 연구가 국가 공간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회·경제 공간의 변이를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31) Cochrane, A., 앞의 책; Harvey, D., "Three Myths in Search of a Reality in Urban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5, 1987; Lovering, J., 앞의 책; Smith, N., 앞의 책 참조.

위한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회와 공간의 상호관계³²⁾

로컬리티 연구의 핵심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로컬에 있어 사회·문화와 공간(혹은 장소)의 의존 관계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이다. 즉 국가 내에서 사회관계 혹은 활동이 공간적 변이(spatial variations)를 보이는데 이것을 해명하는 작업이다. 로컬리티 연구는 그러한 변이 현상을 로컬 내·외부 요인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과학은 사회와 공간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혹은 공간은 사회관계 혹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배경 혹은 무대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사회와 공간이 상호 관계되는 새로운 인식의 틀이 만들어졌다. 공간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며, 생성된 사회·물질 공간은 개인 혹은 집단의 인식과 활동을 제약하거나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간은 불균등하게 발전하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정치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상이한 로컬(혹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로컬리티 연구에서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사회학자는 Giddens(1976, 1984, 1985)와 Urry(1981, 1983,

32) 사회와 공간/장소의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는 1970년 이후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문학, 건축학, 예술, 철학 등에서 대단히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본 연구자의 능력 밖에 있다. 그리고 소수의 로컬리티 연구자들(Urry, 1981, 1987; Duncan, 1989; Massey, 1991 등)이 로컬리티와 관련시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로컬리티 연구에서 이루어진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한정시킨다. 그러나 '로컬리티 인문학'은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사회·문화·역사와 공간/장소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방법론·경험 측면에서 넓고 깊게 그리고 정교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7)이다. Giddens는 사회를 구조(structure)와 행위(agency)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관점, 구조화론(structuration)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을 전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사회와 연관시켜 다루었고, 로컬리티와 관계된 주요 개념은 로칼(locale)이다.

Giddens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체계적 통합(system integration)이 구체적인 로칼(locales)에서 함께 어우러진다고 보았다. 로칼 용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무대 이상의 무엇을 의미한다. 즉 로칼은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사회적 통합은 시·공간 속에서 살면서 일하고 놀이하는 행위자의 시·공간 [인지와 활용의] 반복성(time-space routinisation)을 반영한다. 체계적 통합은 현재(current)의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은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혹은 상이한(variable) 시·공간의 거리화(time-space distanciation)를 가능하게 한다.³³⁾

Duncan(1989)은 로칼(locale)을 논의한 뒤 로컬리티(localities)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기든스는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수단(혹은 전략)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공간은 사회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터전(settings)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재)생산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직되고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터전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능력은 사회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힘(혹은 권력)의 특성이 된다. Giddens는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있어 공간의 우연적 효과(contingency effect)를 강조하였지만 사회과정이 어떻게 특정한 터전의 활용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생성된 사회·물리 공간은 사회과정

33) Cloke, P. et al., *Approaching Human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Theoretical Debat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1, p.112.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론화시키지는 못하였다.³⁴⁾ Duncan (1989)은 아래와 같이 로칼(locale)과 로컬리티(locality)를 구별하고 있다.

로칼(locale)은 어떠한 경우에도 로컬리티와 동의어는 아니다. 아마도 로컬리티는 로칼(예를 들면, 상호작용을 위한 물리적 터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로칼이 로컬리티는 아니다. 기든스가 지적한 것처럼, 전자(로컬리티)는 책상 모서리에서 국민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공간규모에서도 존재한다. 두 용어는 비대칭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불연속성(discontinuities)이 존재한다. 첫째로 로칼은 로컬리티(로컬리티 효과)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조직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로칼은 구체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매개(medi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로컬리티 효과는 구체적 장소에서 사회적 관계를 생산할 수도 있다. 둘째로 기든스는 로칼을 전형적인 집합체의 상호작용(typical interactions of collectivities)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컬리티는 상이한 요소들의 혼합(mixture)으로 보고 있다. 로칼이 전형적/대표적(typical)이라면, 로컬리티는 유일하며(unique) 이질적(heterogeneous)이다.³⁵⁾

Urry(1987, pp.438~441)는 실재론적 측면, 특히 사건과 구조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구분 관점에서 사회적 객체(social objects)와 공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물리적·사회적 실체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Hume에 의하면,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세계는 여러 가지의 시간적·공간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개별

34) Duncan, S., 앞의 책, pp.243~244.

35) Duncan, S., 앞의 책, p.245.

적 사건 혹은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건과 현상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필연적 관계성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연적 결합(contingent connections)만이 존재한다. ‘사건’은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건은 어느 순간(혹은 구간)의 시간에 그리고 어느 지점(혹은 지역)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실재론적 물질존재론(realist thing-ontology) 혹은 구조 존재론(structure-ontology)에 의하면, 물질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지닌 실체(entities)가 실존하며, 존재의 내구성(persistence)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과적 힘(causal power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경험적 사건들은 존재의 인과적 힘들이 부분적으로 현실화(realization)된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군의 경험적 사건들은 하나의 실체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어떠한 실체도 자체에 하나의 군집(a whole class)의 경험적 사건들을 발생시키는 인과적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에 다양한 사회적·자연적 실체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힘은 조사대상이 되는 일정한 범위의 경험적 사건을 생산할 것이다. 실체들은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체들의 인과적 힘은 다른 실체들의 인과적 힘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된다. 발생한 경험적 사건들(예를 들면, 지역에 따른 국가 인구의 공간적 분포)은 대단히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의존적 과정들의 산물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단순한 합산(simply aggregated)이 아닌 연구대상인 실체들의 인과적 힘들의 종합(synthesis)이다. Marx에 의하면, 구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것들(실체의 인과적 힘)의 종합이다. 구체는 많은 정의들의 종합, 즉 다양한 측면의 통합(the unity of diverse aspects)에 의해 재현된다.³⁶⁾

36) Urry, J., 앞의 책, p.438.

장소 혹은 장소 정치와 로컬리티를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³⁷⁾ Cochrane(1987)은 로컬리티 연구에서 장소의 상이성 혹은 우연성 그리고 장소의 정치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로컬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Massey(1984)의 『노동의 공간적 분업』에 포함된 장소 혹은 지역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장소의 이해는 경제와 사회 변화의 과정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Massey는 지역들 혹은 지역 하부의 보다 작은 규모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영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Massey는 공간적 차이의 해명 작업을 넘어 어떻게 계급과 성이 특정 지역에서의 실천들에 의해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³⁸⁾ Cochrane은 두 가지 관점에서 메시지를 비판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한 지역 공간을 포함시키면서 이론적 개념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전체를 비판하지 않고 세분화된 혹은 미시적 구조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Massey(1991)에 의하면, 장소는 인간 의도성의 수동적 반영물이 아니라 지방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물질적 관계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실체이다. 또한 역동적이며 내부적으로 모순적 성질을 갖고 있고, 외부 지향적인 지구적 차원의 장소감(a global sense of place)은 확실히 진보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7) Cochrane, A., 앞의 책; Massey, D., 앞의 책; Swyngedouw, E.A., 앞의 책 참조.

38) Cochrane, A., 앞의 책, p.356.

4. 결론

로컬리티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 특히 영국에서 진행된 사회·경제 공간의 급속한 변화를 해명하고,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이루어졌다. 이후 이 연구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으로 확산되었다. 본 논문은 1980년대~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영미권의 로컬리티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중요한 논쟁적 주제인 로컬리티 개념, 토대 이론, 사회와 공간의 관계성을 논의하였다.

로컬리티 연구의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로컬리티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의 재구조화를 이해하고, 변화에 따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두 번째 연구 배경은 로컬리티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이다.

로컬리티 연구를 주도한 분야는 지역학, 도시학, 지리학, 사회학이며, 관련 연구자들은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로컬리티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배경으로 연구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로컬리티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연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세 번째 집단은 로컬리티 연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로컬리티 연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로컬리티 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연구들은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 연구와 구체적 현실을 다룬 연구 그리고 로컬리티 연구를 비판하는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로컬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 이론과 방법론은 구조화론과 실재론이다. 경험 연구는 지역 경제 발전, 지역 노동시장, 주택, 지방정부, 도시와 지역체계의 변화 등 주제들

에 초점을 맞추었다. 로컬리티 연구를 비판하는 연구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논쟁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로컬리티의 개념화’이다. 로컬리티는 로컬 용어와 함께 개념화 작업이 쉽지 않다. 로컬리티 용어가 생성·변화하는(비)물질의 실재들(realities)과 이와 연관된 성질들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로컬리티는 “로컬의 사회·경제 조직과 활동이 시간·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형성된 사회·경제 공간은 로컬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틀(frame)로 개념화되고 있다. 로컬리티 개념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로컬리티 개념은 복잡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사례 연구지역, 지역 노동시장, 소도시, 장소, 지역(area) 등의 용어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컬리티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은 구조화론과 실재론이다. 전자는 구조와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사회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와 시간·공간이 만나는 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 로칼(locale)이며, 로컬리티와 관계시켜 논의되고 있다. 후자는 이원론(dualism, 이론-경험, 추상-구체, 필연-우연)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입장을 취하는 사회 이론가들에 의하면, 사회와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사회와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문화, 장소, 성, 민족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로컬리티 연구의 개별 논문들을 모아 동향을 분석한 뒤 공통성, 상이성, 논쟁점을 찾아 전체적으로 기술할 때 필연적으로 개별 논문들의 핵심적 주제 혹은 논점들이 배제되거나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

대~ 1990년대 초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로컬리티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논문 혹은 개별 연구자의 일련의 논문들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컬리티 인문학’의 이론 혹은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신조영, 『그람시(Gramsci) 사회이론과 반결정론적 순간들』, 『미국사연구』 16, 한국
미국사학회, 2002.
- Ritzer, G., *Sociological Theory*, 김왕배 외 옮김, 『사회학이론』, 한울, 2008.
- Bagguley, P. et al., *Restructuring: Place, Class and Gender*, London: Sage, 1990.
- Beauregard, R. A., "In the Absence of Practice; the Locality Research Debate",
Antipode, Vol.20, 1988.
- Bhaskar, R., *A Realist Theory of Science*, Brighton: Harvester Press, 1975.
_____,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Brighton: Harvester Press, 1979.
_____, "Beef, Structure and Place: Notes from A Critical Naturalist Perspectiv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Vol.13, No.1, 1983.
_____, *Scientific Reason and Human Emancipation*, London: Verso, 1986.
- Bowlby, S.R., "The Place of Gender in Locality Studies", *Area*, Vol.18, 1986.
- Cloke, P. et al., *Approaching Human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Theoretical Debat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1.
- Cochrane, A., "What A Difference The Place Makes: The New Structuralism of
Locality", *Antipode*, Vol.19, 1987.
- Cooke, P., *Localities*, London: Unwin Hyman, 1989.
_____, *Back to the Future: Modernity, Postmodernity and Locality*, London: Unwin
Hyman, 1990.
_____, "Dependency, Supply Factors and Uneven Development in Wales and Other
Problem Regions", *Regional Studies*, Vol.16, 1982.
_____, "The 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Regional Studies, Vol.20, 1986.
_____, "Clinical Inference and Geography Theory", *Antipode*, Vol.19, 1987a.
_____, "Research Policy and Review 19. Britain's New Spatial Paradigm:
Technology, Locality and Society in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19, 1987b.
_____, "Clinical Inference and Geographic Theory", *Antipode*, Vol.19, 1987c.

- _____, "The Contested Terrain of Locality Studies", *TESG*, Vol.80, 1989a.
- _____, "Locality Theory and the Poverty of 'Spatial Variation'(A Response to Duncan and Savage)", *Antipode*, Vol.21, 1989b.
- _____, "Locality, Structure, and Agency: A Theoretical Analysis", *Current Anthropology*, Vol.5, 1990.
- Cox, K.R., "The Abstract, the Concrete, and the Argument in the New Urban Politics", *Journal of Urban Affairs*, Vol.13, 1991.
- _____, "Locality and Community: Some Conceptual Issues",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6, 1998.
- Cox, K. and Mair, A., "Locality and Community in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8, 1988.
- _____, "Levels of Abstraction in Locality Studies", *Antipode*, Vol.21, 1989.
- _____, "From Localised Social Structures to Localities as Agen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 Dickens P., *One Nation? Soci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Locality*, London: Pluto Press, 1988.
- Duncan, S., "What is Locality?",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Volume II*, Peet, R. and N. Thrift (eds.), London:Unwin Hyman, 1989.
- Duncan, S. and Savage, M., "Space, Scale and Locality", *Antipode*, Vol.21, 1989.
- _____, "New Perspectives on the Locality Debat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 Elder-Vass, D., "Searching for Realism, Structure and Agency in Actor Network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9, No.3, 2008.
- Giddens, A.,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London: Hutchinson, 1976.
- _____,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 Gregson, N., "Structuration Theory: Some Thoughts on the Possibilities for Empirical Resear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 1987a.
- _____, "The CURS Initiative: Some Further Comments", *Antipode*, Vol.19, 1987b.

- Halfacree, K.H.,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Vol.9, 1993.
- Harloe M. Pickvance C, Urry J., *Place, Policy and Politics: Do Localities Matter?*, London: Unwin Hyman, 1990.
- Harre, R., *Philosophies of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Harvey, D., "Three Myths in Search of a Reality in Urban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5, 1987.
- Jackson, P., "Mapping Meanings: A Cultural Critiqu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 Jonas, A., "A New Regional Geography of Localities?", *Area*, Vol.20, 1988.
- Longhurst, B., "Raymond Williams and Local Cultur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 Lovering, J., "Postmodernism, Marxism, and Locality Research: the Contribution of Critical Realism to the Debate", *Antipode*, Vol.21, 1989.
- Massey, D.,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an, 1984.
- _____,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 _____,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Vol.79, 1993.
- McArthur, R. "Locality and Small Firms: Some Reflections from the Franco-British Project, Industrial Systems, Technical Change and Loc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7, 1989.
- Murgatroyd L. et al., *Localities, Class and Gender*, London: Pion, 1985.
- Outhwaite, W., *New Philosophies of Social Sciences: Realism, Hermeneutics and Critical Theory*, London: Macmillan, 1987.
- Page, M., "Locality, Housing Production, and the Local Stat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4, 1996.
- Pred, A.,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geography of Becoming Plac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4, 1984.

- Saunders, P. and Williams, P.R., "The New Conservatism: Some Thoughts on Recent and Future Developments in Urban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4, 1986.
- Savage, M. et al., "Locality Research: the Sussex Programme on Economic Restructuring, Social Change and the Loc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Social Affairs*, Vol.3, 1987.
- Sayer, A.,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London: Hutchinson, 1984.
- _____,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Resear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3, 1985.
- _____, "Dualistic Thinking and Rhetoric in Geography", *Area*, Vol.21, 1989a.
- _____,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Problems of Narra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7, 1989b.
- _____,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1991.
- Sayer, D., *The Violence of Abstra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7.
- Smith, N.,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Some Comments o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Vol.19, 1987.
- Stacey, M., "The Myth of Community Stud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20, 1969.
- Swyngedouw, E.A., "The Heart of the Place: the Resurrection of Locality in an Age of Hypespace", *Geografiska Annaler*, Vol.71, 1989.
- Thrift, N.,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 1983.
- Urry, J., Localities, "Regions and Social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5, 1981.
- _____, "Locality Research: The Case of Lancaster", *Regional Studies*, Vol.20, 1986.
- _____, "Survey 12: Society, Space and Loc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5, 1987.
- Warde, A., "Recipes for a Pudding: a Comment on Locality", *Antipode*, Vol.21, 1985.
- _____, "Industrial Restructuring, Local Politics and the Reproduction of Labor Labor Power: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6, 1988.

Warf, B., "Ideology, Everyday life, and Emancipatory phenomenology", *Antipode*,
Vol.18, 1986.

_____,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Vol.10, 1998.

_____, "Can the Region Survive Post-modernism?", *Urban Geography*, Vol.11, 1990.

_____, "Power, Politics, and Locality", *Urban Geography*, Vol.12, 1991.

| Abstracts |

Study on the Retrospect and Controversial Subjects of Locality Studies

Park, Kyu-Tae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various aspects of locality studies done mainly in England and America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It is also to discuss their controversial topics, the concept of loc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spac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locality was conceptualized. It is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local people implemented through the mediation of time and space and the effects of the produced socio-economic space to local people's cognition and practice.

The basic theories of locality studies are structuration and critical realism. The former is to explain a society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structure and agency and the latter to suggest a theoretical framework to overcome the dualism formed between theory - experience, abstract - concrete, necessary - contingent, and so on. It is asserted that society and space are not separated, but exist in interaction by political economy -oriented theorists after the 1970s. Such a perspective did not seriously consider various factors like culture, place, gender, ethnicity in the interaction of society and space.

To deeply understand of the locality studies done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individual paper or authors' sequential ones ought to be investigated in detail. It is worth to interactively examined Marx's political economy, critical realism, and post-modernism to establish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locality-mediated humanities in future.

Key Words : Critical Realism, Locality, Locality-Mediated Humanities, Society, Space

· 논문투고일: 2009년 3월 10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0일 · 게재결정일: 2009년 4월 15일

